

Rhodia, 실리카 가격 10% 인상

9월15일자로 전품목 인상 ... 원재료비 · 에너지 · 운송비 상승으로

Rhodia Silica는 실리카 전 품목의 가격을 9월15일자로 10%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일년간의 원재료비, 에너지 및 운송료 인상에 따른 것이다.

Rhodia Silica는 실리카 가격을 인상하면서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또한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hodia의 실리카는 충전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타이어 분야에서는 타이어의 트래드 부분에 사용돼 젖은 노면에서의 미끄러짐을 방지해주어 연료 저감효과를 가져다주며, 실리콘고무 분야에서는 실리콘 고무, 케이블 및 튜브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또 신발 분야에서는 운동화 밑창, 배터리 분야에서는 자동차용 배터리 내의 분리막, 제지는 종이의 부피증진 및 표면처리용, 식품은 커피 및 분말스프 제조에, 소비재 분야에서는 치약의 연마제 및 증점제로 사용된다.

Rhodia Silica는 실리카 생산 및 판매에 있어 글로벌 리더로, 특히 고분산 실리카와 마이크로펄 실리카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에는 한국과 중국공장에서 실리카를 생산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9/20>